

<4>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(1)

사무엘상 14장 24-30절 말씀

①

24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
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
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
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
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

②

25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
26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
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
27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
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의 꿀을 찍고
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

③

28 그 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
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
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
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

④

29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
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
30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
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